

오행론(五行論)에 의한 실내재료 조합의 사용방법 제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주거공간에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Use Method in the Collaboration of the Interior Materials by the Five Elements

- Focused on the Instance which is Applied to the Residential Space in America -

최은희* / Choi, Eun-Hee

Abstract

Asian design has mastered the use of natural elements in the home to create a sense of harmony and balance. The viewpoint of the West recognizes the nature to be conquered while the viewpoint of the Orient recognizes it to be unison with a human being. Additionally, the viewpoint of the Orient reflects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nature, and it does not see assuredly from an opposed viewpoint. The Five elements, one of oriental notion, are based on an affinity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na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Five elements composed of wood, fire, earth, metal, water and to suggest a substantial method for creating a harmonious and balanced environment in the collaboration of the interior materials by the Five elements. When the interior materials incorporate all the relationships of the Five elements, a space will accomplish harmony with the nature and the universe, thus it will be in tune with surrounding.

키워드 : 오행, 목, 화, 토, 금, 수, 상생, 상극, 창조의 순환, 감소의 순환, 조절·지배의 순환, 실내재료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연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자체가 자연물이며 호흡이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자연물이므로, 자연이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기초이다. 자연은 또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생활, 특히 인류 문화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본래적 기반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도 인간과 공존하지 않는 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특히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서양의 자연관은 동양의 인간과 함께 하는 자연과는 달리 정복해야 하는 자연으로 인식되어진다. 또 서구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연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써 자연의 근원적인 부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서양의 자연관이 데카르트 식의 대립적 자연관¹⁾에 머물러 자연을 정

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견주어 동양의 자연관은 언제든지 상호 조화 관계에서 바라볼 뿐, 결코 대립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이렇듯 인간과 자연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자연관은 고대 농경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인들은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아 자연에 적응하게 되었고, 낮과 밤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는 자연의 법칙적인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싹트게 만들었다. 낮의 광명과 밤의 음영을 상징하는 '양(陽)'과 '음(陰)'의 관념이나, 세시(歲時)와 계절의 변화를 성신(星辰)의 운행에 기초하여 이해한 것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대의 자연관에는 도구의 재료들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는데, 인간 생활에 이용 가치가 많은 불을 비롯하여 물, 석기, 목재, 토양, 청동, 철 등은 후에 '오행'의 관념으로 정리된다.

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뒷날의 유학에서 모두 기

1) 자연으로부터 모든 인간적 요소, 빛깔이라든지 냄새라든가 하는 '제2의 성질'이나 '목적의식' 등을 추방하고 오로지 이를 크기·형태·운동 등의 자연 자체 요소를 인과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이것이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관'이다. 이리하여 살아있는 자연을 원형으로 한 유기적 자연관은 생명을 배제한 무기적 자연, 오로지 수학적·인과적으로 취급되는 죽은 자연을 원형으로 삼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다. 오늘날 아직도 우리들은 이러한 데카르트적인 자연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희원, 우석대 산업디자인과 강사

(氣)로 포괄되어 ‘자연의 요소’ 또는 ‘자연의 재료’라고 간주되며, 이들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기가 창조와 생명력을 생성한다는 궁극적인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끊임 없이 순환되는 자연의 변화에 철학적 기초를 둔 오행사상을 이해하고, 다섯 요소인 목(나무), 화(불), 토(흙), 금(금속), 수(물)에 해당하는 실내 재료와 그들의 실질적인 조합 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동양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일종의 자연철학인 오행사상은 상생(相生)하면서도 상극(相剋)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상생하면 만물을 생성·발전하게 하고 상극하면 서로 거절하여 만물이 이에 의해 쇠망하는 상생·상극의 논리로서 구조되어 있다. 동양에서는 이들 사이의 상극하는 대립 관계를 제시하면서도, 보다 중요시하고 긍정해 온 것은 대립의 극복 곧 상생의 조화라고 보아왔다.

이에 본 논문은 오행 사상을 실내 재료에 대입해 봄으로써 오행의 원리에 의해 상생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내 재료의 조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오행에 관한 내용을 국내·외의 기본적인 문헌을 통해 그 유래와 개념을 고찰한다.

두 번째로, 오행의 다섯 요소를 물질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거기에 대응되는 실내 재료를 찾아 각각의 특성과 종류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실내공간 각 부분별 재료들의 일반적인 사용정도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실내공간 각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가 있다면 오행의 관계에 의해 상생적 조화를 이루는 재료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로, 다섯 요소에 해당되는 실내재료를 조합하여 오행의 관계에 따른 이상적인 재료의 사용이나 구성은 무엇인지 주거공간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성격상 정량적이거나 계량화된 해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갖는 의미에 접근하여 생산적·창조적이며 조화로운 실내재료의 사용 및 조합이 되도록 검토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재료를 오행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사용되는 조합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2. 오행에 대한 고찰

2.1. 오행의 유래

오행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元氣), 곧 목·화·토·금·수를 이르는 말이다. 오행이라는 말은 《상서(尙書)》²⁾

의 <홍범(洪範)>³⁾에 처음 등장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물질적 기초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그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하여 그 성질과 효용을 나타냈다. 오행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주만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오행의 관념을 사용하여 일련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그리고 정신현상을 분류하였고, 그것으로 인식한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오행의 다섯 가지 중에 수, 목, 금, 토는 모두 농업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농업 노동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행설을 정식으로 주장한 사람은 맹자보다 약간 늦게 등장한 전국시대의 사상가 추연(騫衍)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이 오행상승(五行相勝) 원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의하여 역사의 추이나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였다. 오행의 덕(德)을 제왕조(帝王朝)에 대응시켜 우(虞)는 토덕(土德), 하(夏)는 목덕(木德), 은(殷)은 금덕(金德), 주(周)는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다는 설을 내세웠다. 그 후 한대(漢代)에 이르러 음양오행설이 성행하여 오행을 우주조화의 면에서 해석하고, 또 일상 인사(人事)에 응용하였다. 이것은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⁴⁾과 더불어 중국 전통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오행 인식은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씨족·부족사회에도 있었으나 사상체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체계화되지는 못하였고 추정된다. 흔히 오행은 음양과 함께 음양오행사상으로 다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음양오행체계가 전래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⁵⁾

2)중국 전통 산문의 근원. 한대(韓代)이전까지는 ‘서(書)’라고 불렀는데, 이후 유가사상의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소중한 경전이라는 뜻을 포함시켜 한대에는 《상서(尙書)》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는 《상서》와 《서경》 두 명칭이 혼용되고 있으며, 우(虞), 하(夏), 상(商), 주(周)시대의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58편의 상서는 동진(東晉)의 매색(梅賾)이라는 유학자가 조정에 바쳤다는 금문상서본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의 위작으로 본다.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역대로 논쟁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 유래가 불분명한 점이 많으나 오랜 세월동안 유가의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지니왔고, 또 중국인들이 진실성을 믿어왔다는 점에서 사상사(思想史)와 문학사(文學史)적으로 그 의의가 인정된다.

3)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의 1편으로서 유가(儒家)의 천하적 세계관에 의거한 정치철학을 말한 글. 홍범구주(洪範九疇)라고도 한다. 정치는 천(天)의 상도(常道)인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 등의 구주(九疇)에 의해 인식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4)오행의 관계에는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 있어, 상생은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으로 그 순서는 목·화·토·금·수이다. 상극은 수극화(水剋火)·화극금(火剋金)·금극목(金剋木)·목극토(木剋土)·토극수(土剋水)를 말하며 그 순서는 수·화·금·목·토이다. 음양가들에 의하면 남녀가 상생으로 화합하면 행복하고 상극으로 만나면 재화(災禍)가 있다고 한다.

5)A.D. 10년경의 《삼국사기》중에 “29년 여름 6월에 모천(矛川)에서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무리를 지어 싸웠다.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흑(黑)은 북방(北方)의 색이므로 북

이 후 음양오행사상은 공간적·시간적·대치적 차원을 넘어 신화적·종교적·윤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제도나 풍속 등 온갖 문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유관념이 되었다.⁶⁾

2.2. 오행의 개념

우주에는 리듬이 있다. 자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리듬을 따른다. 예를 들어,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여름에 자라면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동안은 땅이 쉬도록 한다. 또한 선원과 어부들은 정확히 해, 달, 별들의 움직임과 그것이 조수와 어류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 스틸과 유리로 된 건물에 살고 있는 도시 거주자도 이 리듬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아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우주의 리듬을 분석하였고, 자연과 생명 혹은 삶이 이 리듬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루의 생활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에 시작되며, 하루동안 태양은 서쪽으로 일몰하기 전까지 힘이 강해졌다가 결국 사라진다. 분명히 빛에서 어둠, 그리고 다시 빛까지의 과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시작, 전개, 절정, 감퇴, 끝. 이처럼 자연에서 중국인들은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표현되는 리듬을 알았다.⁷⁾

이와 같은 자연의 리듬에 기초한 오행사상은 우주 사이의 모든 사물이 목(나무, 木), 화(불, 火), 토(흙, 土), 금(금속, 金), 수(물, 水)의 다섯 물질로 귀속되고 이로 인하여 복잡한 운동과 변화가 형성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물질들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다섯 가지 기운이 우주에 산재된 만물에 형(形)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원소(element)라고도 풀이되며, 만물형성의 근원이 된다. 또한 이들 다섯은 상호의존 및 민감한 균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⁸⁾ 이것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가리키며 사물의 상호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으로 응용된다.

다섯 요소들은 가시적, 비가시적 우주의 모든 것을 나타내며, 자연에서 우리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나무와 꽃은 목(木)을 나타내며, 태양은 화(火)를 대표한다. 우리의 주변 경관도 다섯 요소 중 지배적인 요소에 의해 분류된다. 호수 가까이 산다면

물의 환경(water environment)에 있는 것이고, 사막은 불의 환경(fire environment)에 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물과 실내 또한 그들의 지배적인 요소에 의해 분류된다.⁹⁾

(1) 다섯 가지 요소들 (the Five elements)

① 목(木, wood): 봄의 요소(the element of spring)

‘목’의 요소는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 즉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는다.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며 모든 생명체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목’의 에너지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의 새벽 에너지와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은 ‘목’의 요소이며, 봄, 자라는, 초록의, 키가 큰, 정방형의, 나무 같은, 동쪽의, 그리고 성장이나 시작의 원리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목’의 환경에는 숲과 정글, 뾰뾰하게 있는 키 큰 나무들, 재배된 식물, 다량의 막대, 기둥, 열주 등이 포함된다.

② 화(火, fire): 여름의 요소(the element of summer)

‘화’의 요소는 절정에 있을 때의 태양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여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와 유사하다. 태양은 하늘의 남반구를 지나 움직이는데 이 남쪽은 ‘화’의 방향으로 알려져 왔다. ‘화’는 불이므로 붉은 색과 삼각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따라서 뾰족한 산이나, 각이진, 경사진 지붕은 ‘화’의 요소에 해당된다.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도 사막환경에 있는 삼각형태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고전적인 ‘화’모양의 구조이다. 또한 피라미드가 나일강 가까이에 위치한 것은 火-水의 모형(母型)으로 볼 수 있는데 오행의 요소간 결합에 대해서는 뒷장(3.3.)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③ 토(土, earth): 인디언 씨머의 요소(the element of indian summer)

‘토’의 요소는 아주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이며, 밤 시간과 낮 시간이 같아지는 추분 때, 또 삶이 균형 잡히고 편안해 보일 때의 시기를 말한다. ‘토’는 시간적으로 오후의 중간과 인생의 중년을 나타내며, 계절로는 인디언 씨머처럼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

‘토’는 수·화·목·금의 서로 다른 네 기운을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어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토’는 견고함과 안정감을 나타내며 색상은 노랑으로 표현된다.

‘토’를 나타내는 형태는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square)의, 상자 모양의, 평평한 모양이다. 따라서 평평하고 낮고 장식이 없고, 사각형 모양이고, 수수한 구조의 풍경은 ‘토’의 환경에 해당된다.

④ 금(金, metal): 가을의 요소(the element of autumn)

‘금’의 요소는 가을의 기운에 해당하며 그것은 수축하려는 힘이다. 가을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기운 때문에 움츠러

부여(北扶餘)가 파멸할 색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p.57

6) 앞의 책, p.59

7) Angel Thompson, Feng Shui: how to achieve the most harmonious arrangement of your home and office,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6, p.4

8) Kirsten M. Lagatree, Feng Shui at work: arranging your work space for peak performance and maximum profit, New York: Villard, 1998, p.26

9) 앞의 책, p.3

든다. '금'은 금속을 나타내는데, 금속은 땅의 압력에 의해 광석이 변형되고 압축되어 만들어진다. '금'의 요소는 서쪽의, 흰색의, 은색의, 둥근, 동전 같은 형태와 연관이 있다.

'금'의 풍경은 이태리 투스카니(tuscany) 지역에 있는 모습처럼 둥근 지붕 면을 가진다. 그것은 아치, 돔, 커브로 특징을 나타내고, 철근콘크리트, 주철, 철, 구리로 만들어지거나 가공된 건물들, 둥근 또는 곡선이 있는 건물들, 그리고 반사적인 표면들도 '금'의 요소에 속한다.

⑤ 수(水, water): 겨울의 요소(the element of winter)

'수'의 요소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으로, 겨울의 기운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한다. '수'와 관련된 색은 검정, 깊고 어두운 물색, 그리고 형태는 강의 흐름이나 파도 모양의 곡선 등의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된 것이다.

'수'와 연관되는 제품으로는 수족관, 분수, 냉각기, 꽃병 같은 유리제품 등이 있다.

<표 1> 오행의 개념

요소	목(木, wood)	화(火, fire)	토(土, earth)	금(金, metal)	수(水, water)
형태	높은, 우뚝 솟은	날카로운, 뾰족한, 삼각형의	평평한	둥근, 반구(돔) 형태의	파도치는, 불규칙적인
건물의 형태	장방형 (직사각형)	삼각형	정방형 (정사각형)	둥근, 원형	물결모양, 불규칙적 모양
방위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계절	봄	여름	변절기	가을	겨울
색	녹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사신	청룡	주작	.	백호	현무
기후	바람 부는	더운	습한	미른	추운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감정	희(喜)	락(樂)	욕(慾)	노(怒)	애(哀)
소리	각(角)	치(微)	궁(宮)	상(商)	우(羽)
감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미덕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성질	창조, 영양분, 위로의 성장	이해력(지능), 원기, 인간과 동물의 생명	정직, 믿음, 조화, 안정	반전, 철수, 수축	전달, 생각(사상)의 전달, 사회화
식물	높이 뻗은	만발한(개화한)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침엽수의	소용돌이 모양의
의상	디자이너브랜드 모자를 쓴, 세로 줄무늬가 있는	드라마틱한, 화려한, 요란한	편한, 격식이 없는	정장의, 공식적인	폭이 넓은, 어두운, 스포츠 웨어
사물	식물, 목재, 나무로 만든 가구	조명, 난로, 촛불, 화로	돌, 바위, 모래, 벽돌, 타일, 테라코타, 스테코	파일 캐비닛, 컴퓨터, 팩스, 가공한 철, 금속	수족관, 거울, 유리, 크리스털

(2) 다섯 요소들의 관계

다섯 요소들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요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상생(相生)과 상

극(相剋)으로 나뉜다.

상생이란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생성시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다. 물은 나무가 살도록 도와주므로 물과 나무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고 이를 '수생목(水生木)'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으면 쉽게 불을 만들 수 있고 불은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무와 불은 서로 돕는 관계이며 이를 '목생화(木生火)'라고 한다. 불이 타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재는 불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흙과 불은 서로 조화하는 관계이고 이것을 '화생토(火生土)'라고 한다. 흙 속에서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며 쇠는 흙에서 그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생금(土生金)'이라고 표현한다. 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에서 기운이 수축하여 물이 생기는 관계를 '금생수(金生水)'라고 한다.

한편 다섯 요소의 각 기운은 서로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극이라 한다. 불은 물을 통해 억제되고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수극화(水剋火)'라고 한다. 쇠는 강하지만 불에 달구어지면 무력해지는 것을 '화극금(火剋金)'이라고 한다. 나무의 기운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는 기운이지만 금속에 의해 잘려지고 이를 '금극목(金剋木)'이라고 한다. 흙은 모든 기운으로 뭉쳐져서 정지하려는데 비해 나무는 흙에서 솟아오르려 하는 성질이 큰 관계를 '목극토(木剋土)'라고 한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려 하지만 이런 물도 제방을 쌓으면 그 흐름이 정지된다. 끈 물은 흙으로 억제되고 이러한 관계를 '토극수(土剋水)'라 한다.¹⁰⁾

상생은 그들의 관계가 지속되어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순환'(the cycle of cre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조화의 순환(the cycle of harmony)으로 요소들은 시계방향으로 움직여 창조하고 생성하는 관계에 놓인다. '목'은 '화'의 모체이고, '화'는 '토'의 모체이고, '토'는 '금'의 모체이고, '금'은 '수'의 모체이고, '수'는 '목'의 모체가 된다.

창조의 순환에 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감소의 순환'(the cycle of reduction)이 된다. 이 관계는 힘을 감소시키는 하지만 파괴하지는 않는다. '목'은 '화'에 의해 감소되고, '화'는 '토'의 첨가에 의해 감소-이것은 벽난로와 모닥불을 돌, 타일, 다른 '토' 물질로 둘러싸는 이유이다-되고, '토'는 삽이나 쟁기 등의 '금'에 의해 그 기운이 감소되고, '금'은 '수'에 용해되어 그 기운이 감소되고, '수'는 '목'에 흡수되어 감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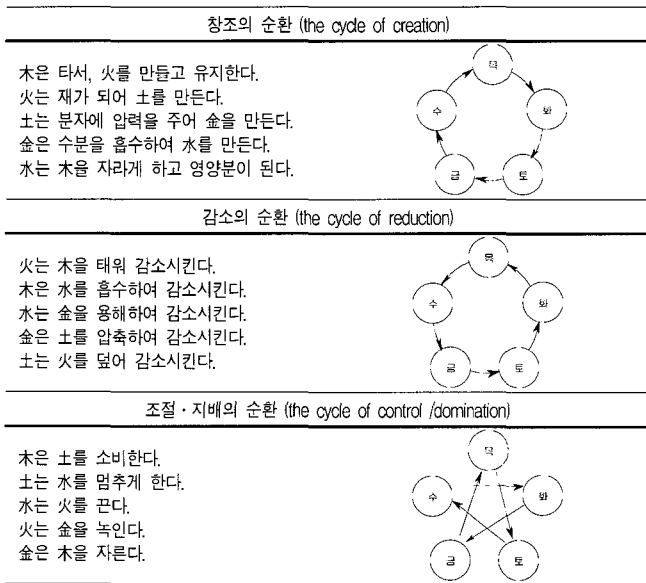
상극 관계에 있는 요소는 다른 요소를 파괴 혹은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절·지배의 순환'(the cycle of control·dominatio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소들이 이 순서에 의해 조합되면 높은 에너지를 낳는 동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이 순환은 파괴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게 할 환경으로 조절하는 것이

10)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pp.48-50

중요하며, 어떤 요소도 그 자체가 파괴적인 것은 없다.

이 세 가지 순환은 환경의 균형을 위하여 함께 작용한다. 이 순환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될 어떤 공간에 첨가 혹은 삭제해야 할 실내재료로서의 요소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표 2> 세 가지 순환(Three Cycles)



3. 오행에 비춰본 실내재료의 사용

3.1. 오행에 해당되는 실내재료

재료는 각기 고유한 색채, 재질감,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재질감 즉, 텍스처어(texture)는 거칠음과 매끈함, 따뜻함과 차가움, 광택의 유무, 투명도의 고저 등을 말한다. 거칠하고 따뜻한 것은 친근성, 소박성, 편안한 느낌을 주나 매끈하고 차가운 것은 지성적이고 엄숙한 느낌을 준다. 광택이 있으면 화려하고 밝은 느낌이나 광택이 없으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다. 투명도가 높은 재료는 밝고 경쾌하나 투명도가 낮으면 가라앉는 중후감을 준다. 따라서 재료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피부로 느끼는 촉감이나 온냉감은 작품의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¹¹⁾

재료는 크게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재와 벽돌, 콘크리트, 철과 같이 자연의 것에서부터 가공되어진 재료,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인공 재료로 구분된다.¹²⁾

본 연구에서는 오행에 해당되는 실내재료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 과정을 통해 존재하거나 생산된 합성재료는 제외하고, 자연재와 자연의 것에서부터 가공되어진 재료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모래와 다양한 다른 재

료를 열에 용해시켜 만든 고대의 합성재료인 유리는 '수'의 요소로 포함시킨다.

(1) 나무(木, wood)

나무는 디자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무기로부터 종교적인 의식에 쓰이는 물건, 집의 구조로부터 빨감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수 천년 동안 인류에 충실하게 봉사하여 왔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외에도 나무는 어떤 물건에 자연미를 가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¹³⁾

자연적인 상태의 나무는 성장을 상징하며¹⁴⁾, 오행의 나무(木)에 속하는 재료는 나무로 만든 모든 유형으로, 나무가구뿐만 아니라 실크, 면, 린넨 등의 자연적인 섬유와 패브릭, 종이 그리고 허브, 꽃, 식물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2) 불(火, fire)

'화'를 대표하는 불은 실체가 없는 강력한 요소이면서 위협적일 때도 있다. 불은 잘 조절하여 사용하면 인간에게 유용하지만 때론 파괴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불의 변환적인 힘(powers of transformation)은 모래, 흙을 유리와 세라믹으로, 광물을 금속으로 바꾸는 수단이 된다.¹⁵⁾ 또한 차갑고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을 따뜻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준다.

오행의 불(火)에 해당하는 재료는 빛과 열을 내는 모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광택 있는 패브릭, 털, 모와 같은 동물성 제품들도 포함된다. 실내에 주로 사용되는 '화'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벽난로나 화로, 그리고 조명, 촛불, 모로 만든 타피스트리나 러그 등이 있다.

(3) 흙(土, earth)

흙은 다양한 조형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 무한한 창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대부터 흙을 가공하여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오행의 흙(土)에 속하는 재료는 땅에서 나온 모든 재료, 즉 찰흙, 벽돌, 콘크리트, 세라믹 타일, 대리석, 모래와 바위 등이 해당되며 각 재료마다 차갑고, 딱딱한, 단단한, 혹은 따뜻한, 유순한, 부드러운 등의 재질감이 상이하다.

(4) 금속(金, metal)

금속은 강하며 단단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화려한 광택을 갖고며 차갑고 딱딱하다. 금속은 유리나 같은 재료와 조합시키면 긴장감이 더해지고, 나무나 직물과 조합하면 강한 재질감의 대비효과로 화려한 장식효과를 갖는다.

13)마조리 엘리오프 베블린, 정경원 역, 디자인의 발견, 디자인하우스, 2000, p.166

14)Jane Edwards, Asian Elements: natural balance in eastern design, Soma, 1999, p.69

15)알의 책, p.95

11)박홍,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1992 p.137

12)오인욱, 실내디자인개론, 기문당, 1990, p.167

금속은 손잡이, 주방용품, 조명 등의 장식품, 생활용품에서부터 건축, 토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행의 금속(金)에 해당하는 재료는 알루미늄, 철근콘크리트, 철, 강철, 구리, 주석 등 모든 타입의 금속이 여기에 속한다.

(5) 물(水, water)

오행의 물(水)에 속하는 대표적인 재료는 유리이며, 그밖에 거울, 크리스탈, 물과 연관된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유리가 귀중한 재료로 간주되는 것은 재료 자체의 투명성, 유연성, 광택 등의 순수한 형태적 요인 때문이다. 유리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유리라는 재료가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작품은 모두 공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유리는 그 자체만으로 구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요소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유리는 투명한 감과 아울러 특유의 광택으로 딱딱함, 차가움, 그리고 매끄러움의 재질을 갖는다. 차가운 금속과 조합되면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나지만 광택이 더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나무와 결합하면 차가움과 따뜻함은 대비되고 투명성이 강조된다.

3.2. 실내의 각 부분별 재료사용

실내를 구성하는 각 부분별 재료들의 일반적인 사용정도를 문헌16)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실내공간 각 부분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재료가 있다면 오행의 관계에 의해 상생적 조화를 이루는 재료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문헌의 내용이 미국의 실내재료 사례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 실내에 사용되는 재료와는 차이가 있다.

문헌의 내용에 따르면, 실내재료 중 목재, 석재는 사용빈도

가 가장 높은 재료였으며, 이 중 명확히 오행에 해당되는 재료는 목재(木), 석류(土), 금속(金), 유리(水)이다. 목재는 세로로 긴 구조와 비교적 가벼운 무게 때문에 바닥, 벽, 지붕에까지 선호되는 재료이며, 건축 구조의 주요한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가구구조에도 사용된다. 석류(masonry)는 역사적인 건축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근대에도 계속 사용된 재료이다. 많은 고대의 폐허된 구조에 돌로 만들어진 벽과 기둥들은 남아있지만, 목재는 한 두 가지의 자연재해에도 사라진다. 금속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물과 연철 형태의 철은 다리건설, 공장의 기둥, 그리고 기관차고, 시장통로 등 실용적인 건물의 골조에 주요한 구조적 재료로 이용되었다. 유리는 투명성이 필요한 창, 문, 파티션 등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며, 또한 전체 구조의 외부를 씌우는 “커튼 월(curtain wall)” 창이 있는 건물에서는 중요한 외장 재료가 된다.

문헌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실내의 각 부분별 재료의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바닥, 벽, 계단 부분에는 목재와 석류를 주로 사용하고, 기둥에는 석류의 사용이 가장 많다. 문과 트림(장식) 부분과 붙박이 가구엔 목재가 주로 사용되며 벽난로엔 ‘화’의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 석류와 금속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의 공간인 욕실의 정착물(fixture)엔 목재, 석류, 금속, 유리의 고른 사용을 보이며, ‘화’와 ‘수’의 공간인 부엌의 정착물엔 목재와 금속이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명확하게 ‘화’의 요소인 벽난로, ‘수’의 공간인 욕실, 그리고 ‘화’의 공간이면서 ‘수’의 공간인 부엌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오행에 의해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조합은 어떤 유형인지 다음 절(3.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3> 실내의 각 부분별 재료사용정도

	바닥	벽	기둥	천정	계단	문	창틀	가구		정착물		벽난로	트림(장식)	철물류
								이동	붙박이	욕실	부엌			
목재	●●○○○	●●●●●●●●●●	●	○○○	●●●○	●●●●●	●○	○○●●●●●●●●	●●●●	○○●●		●○		
석류	●●●●●●●●●●	●●●●●●●●●●	●●●●●●●●●●	○	○●●●●●●●●●			○○○	○○	○○○		●●●●●●●●●●	○	
금속		○○	●●		●	●	●●●	●○○○	○	○○●●	●●●●	○○○	○○○	●●●●●●●●●●
유리		○○	○	○		●	●●●○	●○	○	○○○○				
플라스틱	●	○○●●●	○●		○●	○	○●●	○○○	●○	●	●○		○	
텍스타일	●	○○●●●				○	●	●	●					
기타	○○○	●●●●●	●●●	●●●●	○○●						○			

(○: 구조적 사용, ●: 비구조적 사용 (빈번하게), ○: 비구조적 사용(중중), ●: 구조적+비구조적 사용(빈번), ◎: 구조적+비구조적 사용(중중))

16) John F. Pile, Interior Design, Prentice Hall, 1995, pp.206-207의 Table 6. Interior Materials

3.3. 오행의 관계에 따른 실내재료의 조합

실내재료의 사용을 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재료선택 기준의 기능적, 심미적인 면을 넘어 공간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함이다. 완벽한 환경 또는 공간은 균형과 조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 요소가 공간이나 환경을 지배할 때, 그 공간은 한 요소의 과다로 불균형과 부조화에 놓일 수 있다. 전체가 백색(금)인 방은 삭막하고 부자연스럽고, 너무 많은 빛과 열(화)이 있는 방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며, 창이 거의 없고 어두운 천으로 가려진 방(토)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것이다.¹⁷⁾ 따라서 성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다섯 요소의 균형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한 요소는 다른 요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섯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 공간은 자연을 닮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섯 요소 사이의 관계는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 요소들의 관계에 따른 실내재료의 사용은 오행의 관계가 두 요소사이에 이루어지므로 공간에 주도적인 두 요소를 전제하여 조합하였다.

(1) 목 + 화

'화'의 요소에 대해 '목'은 창조적 순환에서 보듯이 조화로운 상생의 관계에 있으며, '목'의 요소에 있어 '화'는 파괴하지는 않지만 힘을 감소시키는 관계에 있다. 주어진 환경에 '목'이 충분하지 않다면 꽃, 식물, 초록으로 채워진 수납장, 혹은 식물 사진 등으로 간단히 첨가할 수 있다. 반면 주어진 환경에 '목'이 많다면 '목'은 감소의 순환에서 '화'에 의해 감소되므로 불의 사용은 '목'의 기운을 줄어들게 해준다. 상징적으로 향 피우기, 빛을 내는 촛불, 전기 조명, 붉은 꽃, 붉은 색 등으로 불(火)을 첨가할 수 있다.

<표 3>에서 부엌의 정착물(fixture)에 목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목'과 '화'의 조화관계를 고려할 때 적합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부엌 바닥이나 작업대의 상판에 '토'의 요소인 대리석이나 석회석, 화강석을 사용한다면 목·화·토의 창조적 순환을 이루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부엌의 실내재료에 많이 사용되는 조합유형에 속한다. <그림 1>

(2) 목 + 토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木剋土)'인 조절·지배의 순환에 속하는 파괴적인 상극관계이다. 주변 환경에 '토'의 요소가 너무 많다면 '목'의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토' 기운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림 2>의 다이닝룸은 바닥의 목재 플로링, 목재 가구(목의 요소)와 벽면의 콘크리트 블록(토의 요소)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과 '토'만 있다면 파괴적인 순환의 상극관계에 속하지만 식탁 위에 매달린 세 겹의 종이 초롱(paper lantern)의 '화' 요소가 있어 세 요소는 서로 창조적인 관계에 놓인다.

17) 앞의 책, p.20

뿐만 아니라 종이 초롱은 큰 스케일의 원형으로 만들어져 바닥과 벽의 재료, 마감에서 보이는 딱딱한 경직성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림 1> 목 + 화,
출처: Carol Soucek King,
Feng shui at home, p.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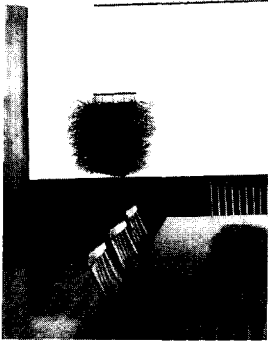
<그림 2> 목 + 토,
출처: 앞의 책, p.115

(3) 목 + 금

'목'과 '금'의 관계는 '금극목(金剋木)'의 상극관계에 해당된다. 주변 환경에 너무 많은 '목'이 있다면 다듬고, 자르고, 혹은 조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톱이나 도끼이외의 금속으로 된 모든 물건들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며 '목'의 기운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와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재료조합은 이질감과 동적 긴장감을 낳는다. <그림 3>을 보면 금속(금)으로 감싼 청색 톤(수)의 원형기둥(금)과 흰색으로 페인트된(금) 벽 부분을 제외한 바닥마감, 가구, 장식물 등은 모두 '목'의 요소에 속한다. 여기서 '목'과 '금'이 상대적 대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목'의 억제를 위해 '금'을 조절하여 사용한 것이며, 중간의 매개체로 청색의 '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금·수·목 관계에 따른 조화의 순환을 이루어 파괴적인 관계에만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목'과 '금'의 재료조합은 테이블, 의자, 목재 계단과 난간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4) 목 + 수

'목'과 '수'의 관계는 '목과 화'의 관계와 비슷하다. '목'의 요소에 대해 '수'는 나무의 영양분처럼 창조적 순환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으며, '수'의 요소에 대해 '목'은 '수'를 흡수함으로써 힘을 감소시키는 관계에 있다. <표 3>에서 욕실의 정착물(fixture) 재료로 '목', '토', '금', '수'의 재료가 고르게 사용되는데 이 중 목재는 수 환경(water environment)이라 할 수 있는 욕실에 '수'의 요소가 과다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파괴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는 재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의 다이닝룸 주재료는 나무와 유리이며 '금'의 요소가 식탁에 조금 사용되는데, 벽면의 푸른색 톤으로 그려진 페인팅은 '수'의 요소인 유리와 더불어 바닥과 가구부분에 쓰인 '목' 요소에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목'을 더욱 활력 있게 하고 있는 '수'의 요소와 '목'의 요소는 아주 조화롭다. 뿐만 아니라 식탁의 두 겹으로 처리된 유리 상판과 금속으로 된 다리도 창조적 순환에서 '금'과 '수'의 관계로써 조화를 이룬다.



<그림 3> 목 + 금,
출처: 앞의 책, p.119



<그림 4> 목 + 수,
출처: 앞의 책, p.69

(5) 화 + 토

‘화’와 ‘토’의 관계는 ‘목과 화, 목과 토’의 관계와 비슷하다. ‘화’의 요소에 대해 ‘토’는 ‘화’의 기운을 감소시키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화’ 요소를 줄이고 싶으면 도자기, 진흙타일이나 다른 토의 물질 혹은 색을 농음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토’ 성분으로 지은 멕시코 헤시엔다(hacienda, 주택이 딸린 농장)를 보면 ‘토’ 재질로 집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다. 이처럼 더운 지방에서 타일, 흙 등의 재료를 제1의 건축요소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토’ 재질이 태양 열을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표 3>의 벽난로에 석류(masonry)의 ‘토’ 요소가 많이 사용되는 것도 유사한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화’는 ‘토’를 강화시킨다. ‘토’의 요소에 대해 ‘화’는 ‘토’ 기운을 성장, 발전시켜주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요소이다. ‘토’의 요소가 적다면 ‘토’ 재료로 만들어진 또는 황색으로 된 ‘토’의 요소를 조금 더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의 요소에 속하는 동물제품인 가죽, 모, 기름 램프, 향, 초, 붉은 색의 물건 등을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화 +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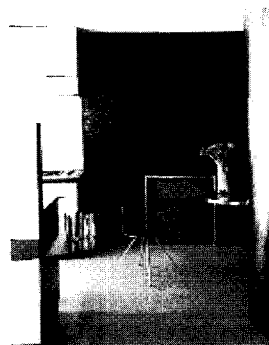
‘화’와 ‘금’의 관계는 ‘화극금(火剋金)’인 조절·지배의 순환에 속하는 파괴적인 상극관계이다. ‘금’의 요소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나 등근, 곡선진 물건들, 그리고 등글고 반사적인 표면들, 흰색도 여기에 속한다. 환경에 ‘금’을 첨가하려면, 은 쟁반, 금속의 요리기구, 황동 주전자, 금 장신구, 연철 난간, 스틸 가구, 금속 조각-금속으로 만든 모든 종류-도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많은 곳이 부엌이라는 것은 <표 3>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금’이 과다한 환경은 강렬한 불이 있는 화로, 초, 향, 적색의 자기 꽃병, 금이나 황동의 촛대, 혹은 전기 스토브 등의 ‘화’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금’ 기운을 통제하여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 두 요소만의 대립적 관계를 놓기보다는 ‘토’의 요소인 타일을 벽이나 조리대에 접하는 작업대에 사용하면 화·토·금의 창조적 순환을 이루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7) 화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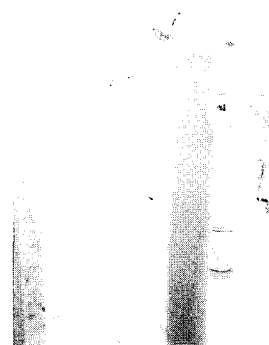
‘화’와 ‘수’의 관계는 ‘수극화(水剋火)’의 상극관계에 해당된다. 이 관계는 ‘수’ 요소의 첨가로 더운 기운을 삭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예로 멕시코 헤시엔다의 입구 근처에는 풀장이나 분수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분수 외에 물그릇, 유리 제품, 또는 바다나 호수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코발트 블루색 타일, 그 색과 유동적인(fluid) 불임 형태는 물(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부엌에서 약 3×3미터(10×10피트) 큰 벽으로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토’ 요소이면서 ‘수’ 요소인 타일과 바로 옆 흰색의 부엌 조리공간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것은 창조의 순환에서 ‘화’와 ‘토’의 상생관계와 조절·지배의 순환에서 ‘화’와 ‘수’의 파괴적인 관계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8) 토 + 금

‘토’와 ‘금’의 관계는 ‘목과 화, 목과 수, 화와 토’의 관계와 비슷하다. ‘토’의 요소에 대해 ‘금’은 ‘토’ 기운을 감소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금’의 요소에 대해 ‘토’는 ‘토생금(土生金)’의 ‘금’을 형성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관계에 있다. 주어진 환경에 ‘토’가 너무 많다면 좀 더 균형 잡힌 환경을 위해서는 금속 종류, 예를 들면, 은, 황동, 구리거울이나 반사하는 물질, 또는 백색을 배치한다. 또한 조절·지배의 순환에 따라 ‘목’의 요소인 식물의 배치나 초록색은 ‘토’의 불균형을 감소시킨다. 반면 ‘토’ 기운이 너무 적다면 모래나 바위 정원의 방법으로 ‘토’를 첨가시킬 수 있고, 또 바위, 돌 항아리, 대리석, 동상 류, ‘토’ 기운이 있는 금색, 오렌지, 오커, 노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 화 + 수,
출처: 앞의 책, p.117



<그림 6> 토 + 수,
출처: 앞의 책, p.93

(9) 토 + 수

‘토’와 ‘수’의 관계는 ‘토극수(土剋水)’인 조절·지배의 순환에 속하는 파괴적인 상극관계이다. ‘수’ 요소의 조절에 있어 ‘목’은 ‘수’를 파괴하지 않고 물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에 비해 압도적이고 너무 활동적인 물이 있다면 ‘토’의 요소로 ‘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 그것은 모래주머니가 강의 범람을 막는 것과 유사하다. <그림 6>의 욕실에는 상부가 오픈된 샤워부스가 대리석(토)을 사용한 등근 형태(금)로 계획되었고, 바다

과 벽은 타일(토)과 거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욕실 하드웨어(부속품)들은 금속제품으로 구성되어 '토', '금', '수'에 해당하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금·수의 창조적 순환은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0) 금 + 수

'금'과 '수'의 관계는 '목과 화, 목과 수, 화와 토, 토와 금'의 관계와 비슷하다. '금'의 요소에 대해 '수'는 '금' 기운을 감소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수'의 요소에 있어 '금'은 '금생수(金牛水)'의 '수'를 형성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관계에 있다. '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물의 정원, 분수나 물 그릇 등의 물 형태를 놓는 것이다. 또한 '토'와 '금'의 관계에 따라 모래, 바위, 타일, 그리고 더 균형 있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토' 요소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금'과 '수'는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 물에 의해 둘러싸인 섬, 뉴욕 맨하튼의 건물은 스틸(금)과 유리(수)로 지어진 건물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고층건물은 번창한다.

이와 같은 오행의 '세 가지 순환' 관계에 따른 실내재료의 조합은 대립보다 상생을 이루는 긍정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성이 바람직하고, 주어진 환경에 부족하거나 과다한 요소를 첨가 혹은 삭제하는 일은 보다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유(remedy)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공간에 재료 선택은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해당 컨셉에 적절한 재료를 1차적으로 선택하고 그것과 상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표 4>의 관계를 적용하여 조합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공간에 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요소를 삭제하거나 아래의 감소적 관계 또는 조절·지배적 관계를 적용하여, 그리고 한 요소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요소를 첨가하거나 아래의 창조적 관계에 의해 재료를 재조정하도록 한다.

<표 4> 오행에 의한 조합관계

요소	목	화	토	금	수
창조적 관계	화(목생화)	토(화생토)	금(토생금)	수(금생수)	목(수생목)
감소적 관계	수	목	화	토	금
조절/지배적 관계	토(목극토)	금(화극금)	수(토극수)	목(금극목)	화(수극화)
창조적 관계로의 치유 요소	화 (목·화·토)	토 (화·토·금)	금 (토·금·수)	수 (금·수·목)	목 (수·목·화)

4. 종합

오행의 요소들은 창조적 혹은 파괴적 순환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요소도 그 자체가 파괴적인 것은 없다.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다섯 요소 모두 우리 환경에 중요하며, 오행의 색, 형태, 그리고 일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공간에 자연을 재창조(re-create)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공간에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다섯 요소들의 관계를 사용해 공간을 재조정하여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은 균형과 조화를 이

루는 상생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행의 다섯 요소의 특성에 따른 실내재료, 실내공간, 이상적인 용도 등을 제시하여 <표 5>에 종합하였다. 본 논문에 제시된 사례는 주로 주거공간의 실내였으나 향후 다양한 환경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하여 실내공간과 이상적인 용도에는 실내·외 주거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을 포함시켰다.

5. 결론

오행사상은 동양전통사회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관계했던 중요한 이론 체계 중 하나이다. 오행사상의 중심 대상은 자연이다. 이는 물·불·나무·쇠·흙을 가리키는 등 본래 자연에 대한 단순한 지시어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는 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행은 흔히 자연을 넘어 인간·역사로 대상영역을 확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오행을 본래 개념인 자연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실내공간에 사용되는 재료와 연관지어 생산적·창조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특징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공간에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오행에 의해 실내재료들이 고려되었을 때, 그 공간은 자연,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잘 조율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이 질서와 구조를 가진 다섯 요소, 목, 화, 토, 금, 수의 조합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오행이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거공간에 오행 개념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홍콩 등에서 발행되는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행에 관한 지식은 더 나아가 다음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건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로운지 비교할 때, 두 번째, 거주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선택할 때, 세 번째, 다섯 요소에 해당하는 재료로 자연의 모습을 재창조할 때, 네 번째, 불균형·부조화의 환경을 색, 형, 재료를 이용해서 개선할 때 등이다.

동양적인 세계관인 오행의 관념을 사용하여 실내재료를 대입하는 것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한 정량적, 계량적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상생의 디자인 개념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일빛, 1999.
2.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3.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민속제의의 형성이론, 서울: 집문당, 1993.
4. 박홍, 실내디자인론, 서울: 기문당, 1992.
5. 오인욱, 실내디자인 개론, 서울: 기문당, 1990.
6. Mariorie Elliott Bevin, 정경원 역, *Design through discovery*, 디자인

의 발견, 서울: 디자인하우스, 2000.

7. Sarah Rossbach, *Interior design with Feng Shui*, New York: Penguin / Arkana, 2000.
8. Richard Webster, *Feng Shui for Apartment Living*, St. Paul: Llewellyn, 1999.
9. Gunther Sator, *Feng Shui: Leben und Wohnen in Harmonie*, G+U, 1999.
10. Kirsten M. Lagatree, *Feng Shui at Work: Arranging your work space for peak performance and maximum profit*, New York:

Villard, 1998.

11. Angel Thompson, *Feng Shui: How to achieve the most harmonious arrangement of your home and office*, NY: St. Martin's Griffin, 1996.
12. Carol Soucek King, *Feng Shui at home*, New York: PBC, 1999.
13. Jane Edwards, *Asian Elements: Natural Balance in Eastern Design*, San Francisco: Soma, 1999.
14. John F. Pile, *Interior Design*, NY: Prentice Hall / Abrams, 1995.

<접수 : 2002. 12. 31>

<표 5> 종합

요소	목(木, wood)	화(火, fire)	토(土, earth)	금(金, metal)	수(水, water)
창조적 관계	화(목성화, 木生火)	토(화생토, 火生土)	금(토생금, 土生金)	수(금생수, 金生水)	목(수생목, 水生木)
감소적 관계	수(木은 水를 감소)	목(火는 木을 감소)	화(土는 火를 감소)	토(金은 土를 감소)	금(水는 金을 감소)
조절/지배적 관계	토(목극토, 木剋土)	금(화극금, 火剋金)	수(토극수, 土剋水)	목(금극목, 金剋木)	화(수극화, 水剋火)
창조적 관계로의 치유 요소	화(목·화·토) → 예: 부엌(화의 공간)에 적용	토(화·토·금) → 예: 벽난로(화의 요소)에 적용	금(토·금·수) → 예: 욕실(수의 공간)에 적용, 토를 주로 한 계단에도 적용가능	수(금·수·목) → 예: 욕실(수의 공간)에 적용	목(수·목·화) → 예: 부엌(수의 공간)에 적용
성질	창조, 영양분, 위로의 성장	이해력(지능), 원기, 인간과 동물의 생명	정직, 믿음, 조화	반전, 철수, 수축	전달, 생각(사상)의 전달, 사회화
가치	인류의 사랑, 인덕, 뿌리와 가지 사이의 균형	이성이나 판단력, 예절	신뢰, 물자 자원의 책임 있는 취급	도덕성, 윤리, 정의, 규칙대로의 사고	지혜, 사회적 활동
미덕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기후	바람 부는	더운	습한	마른	추운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감정	희(喜)	락(樂)	욕(慾)	노(怒)	애(哀)
소리	각(角)	치(徵)	궁(宮)	상(商)	우(羽)
감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사신	청룡	주작	.	백호	현무
계절	봄	여름	변절기 또는 인디언 썬머	가을	겨울
방위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색	녹색	적색	황색(갈색 톤도 포함)	백색(회색, 은색도 포함)	흑색(갈고 어두운 물색도 포함)
시간(시절)	이른 아침: 청소년	정오: 젊은 성년	오후의 중간: 중년	일몰: 노년	자정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식물	높이 뻗은	만발한 (개화한)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침엽수의	소용돌이 모양의
의상	디자인이나 브랜드, 모자를 쓴, 세로 줄무늬가 있는	드라마틱한, 화려한, 요란한	편한, 격식이 없는	정장의, 공식적인	폭이 넓은, 어두운, 스포츠 웨어
사물	식물, 목재, 나무 가구	조명, 난로, 촛불, 화로	돌, 바위, 모래, 테라코타	파일 캐비닛, 컴퓨터, 팩스, 가공한 철, 금속	수족관, 냉각기, 거울, 크리스털
실내재료	- 나무로 된 모든 유형 - 자연적인 섬유와 패브릭 (실크, 면, 린넨) - 아재, 과일, 허브, 꽃, 식물 (살아있는, 인공의, 사진이나 작품으로 나타난 것)	- 털과 모를 포함한 동물성 제품 - 빛과 열을 내는 것들 - 빛과 열을 반사하는 광택 있는 패브릭	- 모래, 찰흙, 대리석, 콘크리트 - 벽돌, 타일, 스테코 - 땅에서 나온 모든 유형	- 알루미늄, 철근콘크리트, 철, 강철, 구리, 주석 등의 모든 타입의 금속 - 소리, 빛, 열 등을 전달하는 철사 - 은을 감싼 투명 필름	- 물과 연관된 모든 유형 - 유리. (유리를 주재료로 만든 건물은 물의 건물로 여겨진다. 유리는 그 자체만으로 구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요소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실내 공간	식당, 어린이 방, 침실	부엌과 요리를 대체할 공간, 스토브, 벽난로	수납 영역, 차고, 내부의 안마당	연장과 같이 사용되는 작업장, 부엌, 금속의 싱크대. (화와 수는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스토브와 싱크대는 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실, 세탁실, 부엌, 와인 저장고, 수영장, 온천, 연못, 분수
형태와 유형	- 높은, 직사각형의(길쭉한), 장방형의, 원주의 - 기념비적인 또는 종교적인 구조를 위해 사용된 형태 - 고층건물, 높은 타워	뾰족한, 경사진, 날카로운 각	- 평평한, 낮은, 간소한, 상자 모양의, 수수한 - 벽돌, 콘크리트, 진흙, 또는 다른 토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 (경사가 급한 지붕의 벽돌 건물은 토의 건물로 분류된다.)	- 둥글고, 곡선으로 된, 돔 모양의 - 반원, 아치	- 파도치는 - 불규칙적인 형태
건물의 형태	장방형 (직사각형)	삼각형	정방형 (정사각형)	둥근, 원형	물결 모양, 불규칙적 모양
이상적인 용도	- 창조성, 영양분, 성장과 연관된 모든 장소 - 온실 같은 식물이 자라는 건물이나 종묘장 - 병원, 요양소, 치료센터 - 레스토랑, 카페,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장 - 나무제품의 생산업이나 소매업 - 예술가의 작업실	- 도서관, 학교, 배움의 장소 - 디자인과 패션에 연관된 장소 - 불, 화로, 화학과 연관된 생산 과정이 있는 장소 - 수의 진료소 (화는 동물의 생명과 연관)	- 병원, 교도소, 정부 건물들 - 굳건하고 영속한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무덤, 능, 지하 납골당, 차고 - 광업이나 터널 파는 것과 관련된 사업장 - 도자기 생산 및 판매업장 - 농업과 연관된 장소 - 은행과 금융기관	- 금융이나 시민 관련 장소 - 금속 장신구, 하드웨어, 금속과 연관된 생산업장 (금·수소는 부와 경제적인 성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거공간보다는 상업적인, 제조를 위한 공간에 적합하다.)	- 생각의 전달에 관련된 장소: 출판사, 미술 화랑, 미술관, 콘서트 홀, 광고회사, 방송국, 미디어 복합기업 - 컴퓨터 용어, 전기 기술실계를 위한 장소 - 액체와 관련된 기름 정련소, 양조장, 병에 담는 것을 취급하는 장소 - 항해, 원양항해, 선박 사업장